

비정규직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
Employment inequalities in health
among South Korea

김 일 호

Definition of nonstandard work

- 상용 :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 직원, 노동법상 해고 보호, 정기적인 승급 보장,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
- 임시 :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고용
- 일용 :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분류

Backgrou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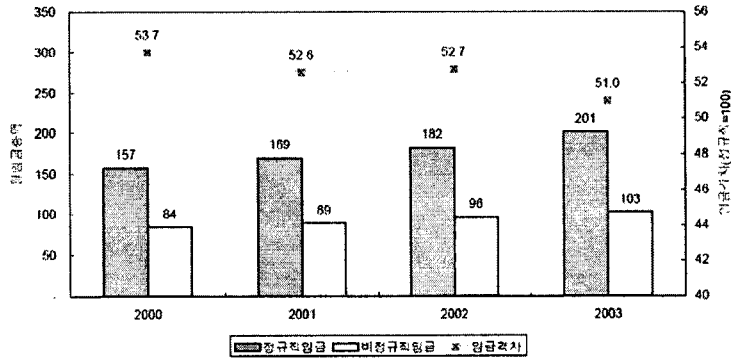
- 현재 세계 노동시장 :
 - Neoliberalism, Flexibility 강조
 - 비정규직의 다양한 형태 변화와 증가
 - 전 세계적으로 약 30%, 더욱 증가 예측
- Nonstandard worker 에 대한 시각 :
 - 학업의 지속 등을 위한 자발적인 선택
 - 생존을 위한 비자발적인 선택

Background

- 직업의 불안정/고용 불평등 수반
 - Unfavorable working conditions
 - 신체적인 건강, Wellbeing 등에 영향
- Public target of recent public policies
 - 비정규직을 차별(Discrimination)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관심
- 우리나라에서 비정규근로의 문제 제기
 -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
 - 비용 절감, 해고 용이한 비정규노동자 증가

Backgrou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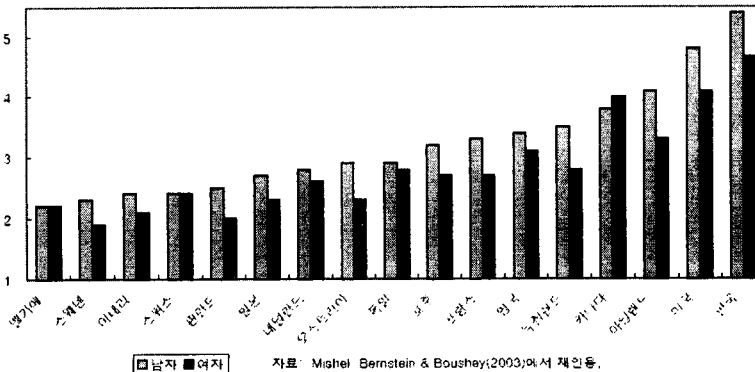
고용형태별 월임금중액 격차 추이(2000-2003년, 단위: 만원, %)



김유선 (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의 변화)

Background

[그림]6 남녀별 임금소득 불평등도 국제비교(시간당 임금 기준, 90/10 임금격차)



자료: Michel Bernstein & Boushey(2003)에서 재인용.

Background

- 보건학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 근로의 문제 제기
 - 비정규직 근로가 신체적, 심리적, 사회적으로 관련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?
 - 비정규직의 지위가 높은 경우에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?
 - 고용불평등의 추이가 근래에 더 커졌는가 ?

Structure

- **Part1:**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- **Part2 :**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- **Part3 :** 고용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시계열 분석

Conceptualized mode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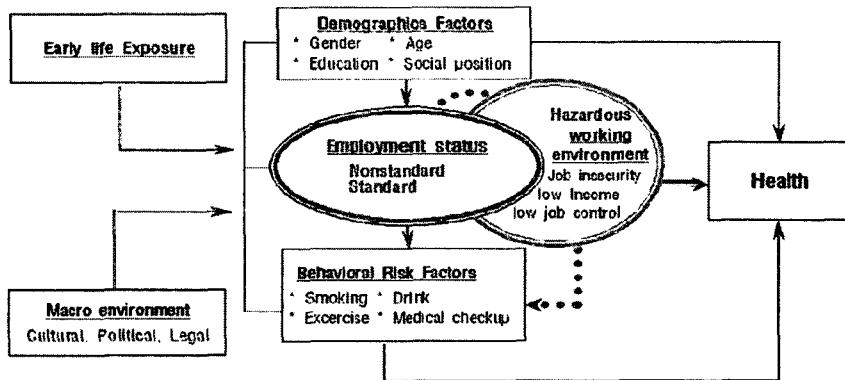


Fig 1. Conceptual framework.

Methodology_study 1

- **Study design** : Cross-sectional study
- **Data** : 1998년/2001년도 국민·건강영양조사
- **Final sample** : 2,748명 (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)
 - 정규직근로자 : 상용근로자(전일제)
2,030명 / 1,563명 aged 20~64
 - 비정규직근로자 : 상용근로자(시간제), 임시근로자, 일용근로자
718명 / 1,045명 aged 20~64

Methodology_study 1

- **Health outcome**
 - Subjective Health (Self-rated health)
 - Psychosocial Health (Depression, Suicidal ideation)
 - Chronic disease
- **Covariate**
 - Age, Gender, Marital status, Education, Income, Social class
 - Smoking, Drink, Exercise, Health examination
- **Analysis** : Multiple logistic Regression

Methodology_study 2

고용불평등의 추이 분석 1995~20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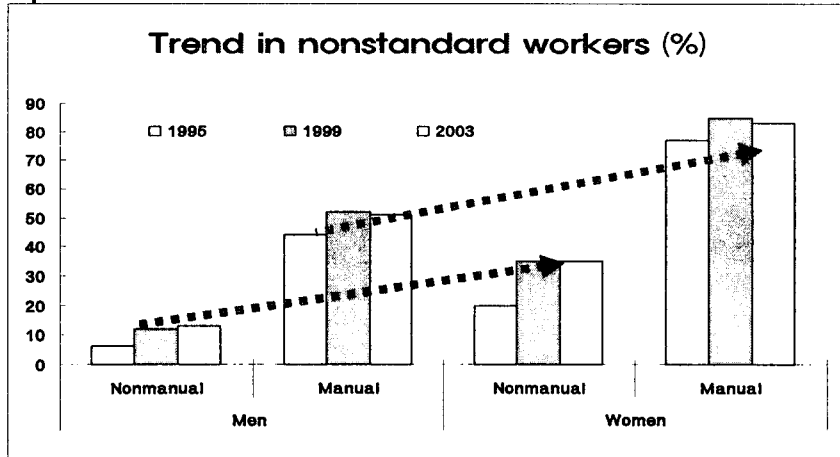
- **Study design** : Repeated Design
- **Data** : Social Statistics Surveys(1995, 1999, 2003)
- **Final sample** : 2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: 66,743명
 - 정규직 : 상용근로자(전일제)
36,802명 (남자 28,461명, 여자 8,341명)
 - 비정규직 : 상용근로자(시간제), 임시근로자, 일용근로자
19,282명 (남자 13,789명, 여자 5,493명)

Methodology_study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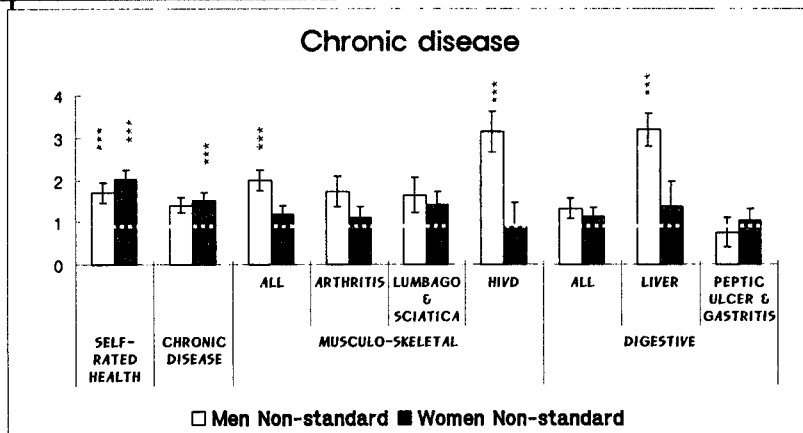
- **Health outcome**
 - Self-rated health
 - Self-reported acute illness
- **Analysis :**
 - 5세 연령 표준화 유병률 (total numbers of paid workers from all 3 surveys being referent).
 - Multiple logistic Regression

Study result

Resul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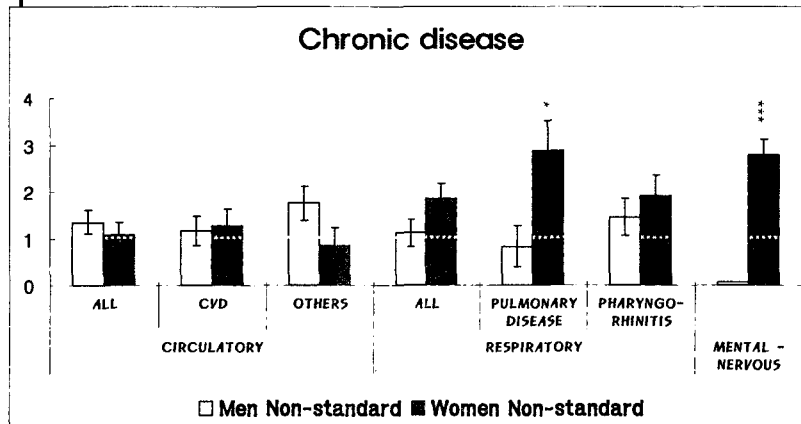


Resul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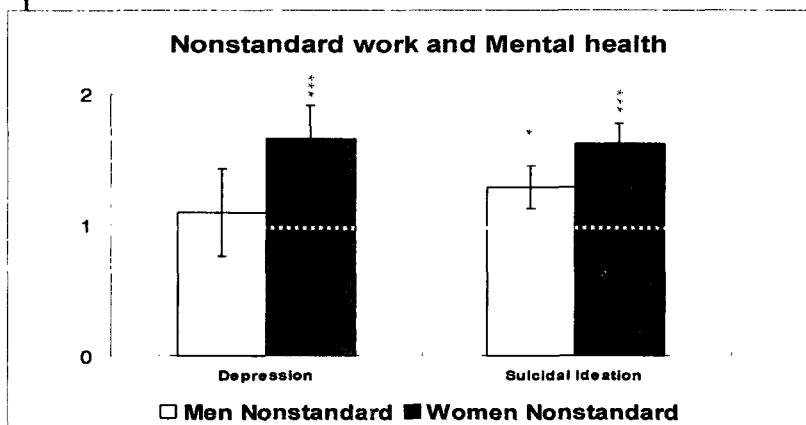
P-value { * : 0.1 이하
 ** : 0.05 이하
 *** : 0.001 이하

Resul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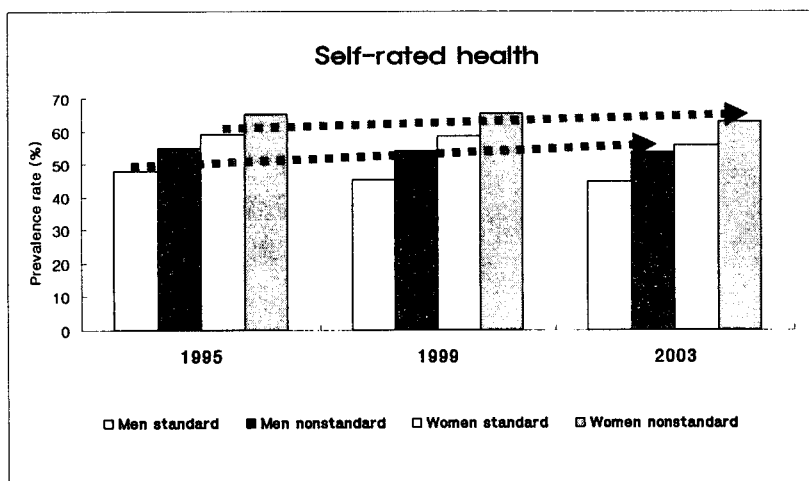
P-value { * : 0.1 이마
 ** : 0.05 이마
 *** : 0.001 이마

Resul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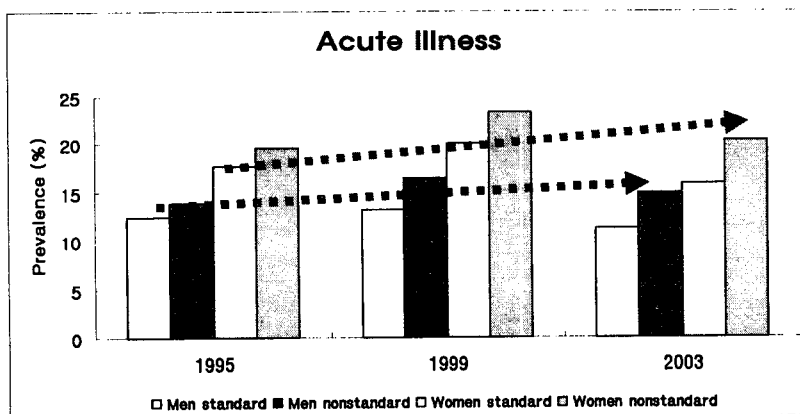


P-value { * : 0.1 이마
 ** : 0.05 이마
 *** : 0.001 이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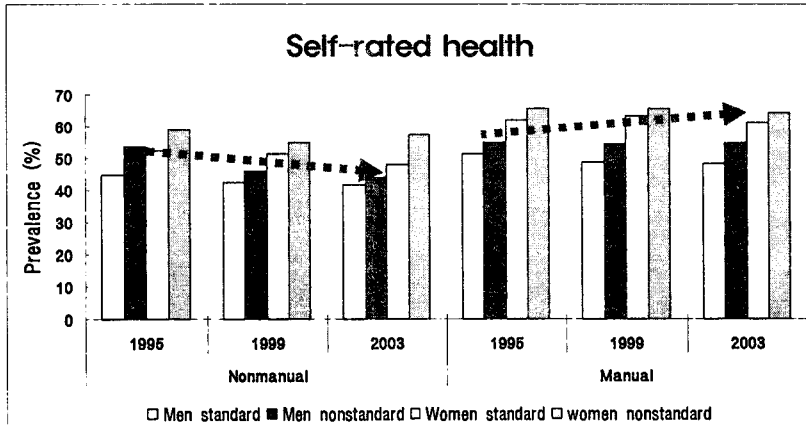
Resul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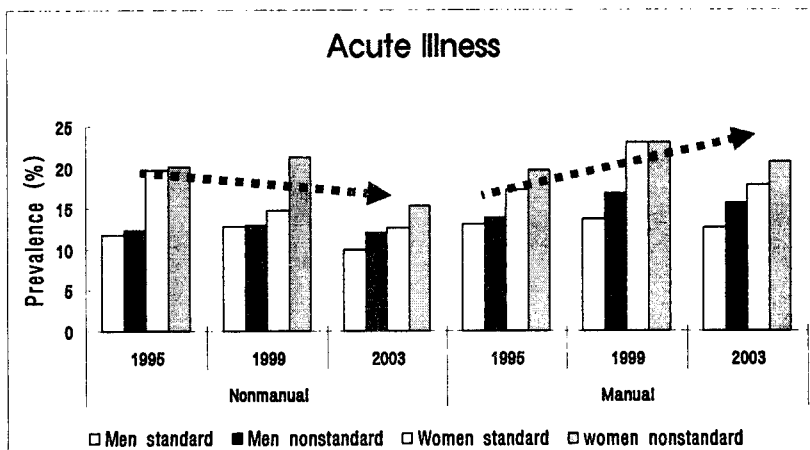
Resul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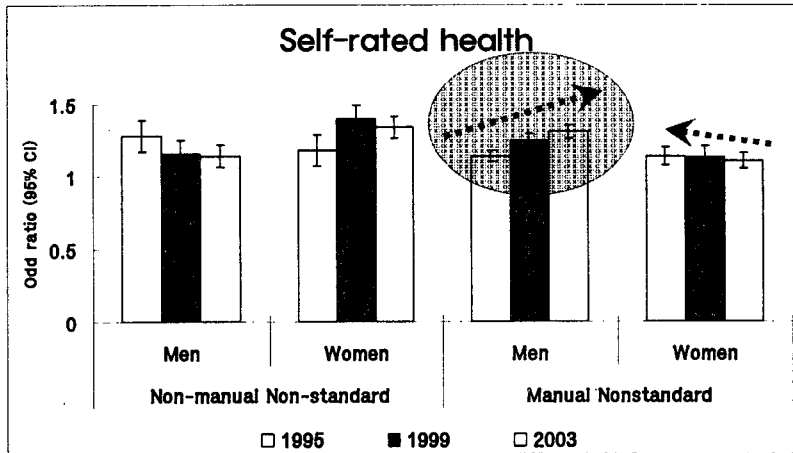
Resul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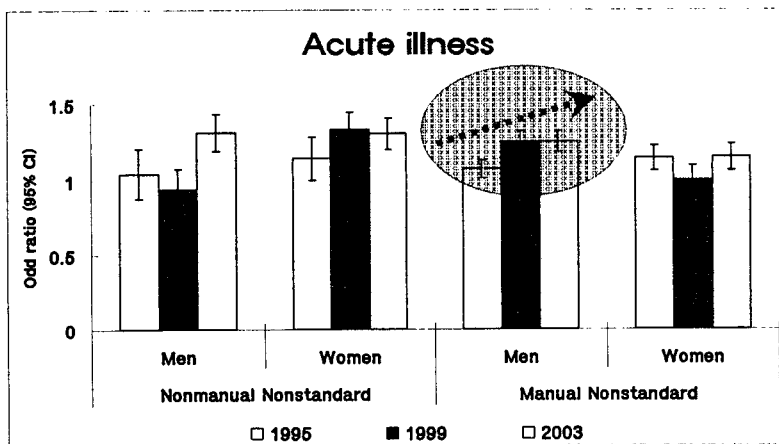
Result



Result



Result



Summary

- 비정규직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 - 남성의 경우 낮은 사회계급(육체노동근로자, 낮은 소득수준, 낮은 교육수준, 낮은 주관적인 생활수준)
 - 여자의 경우 낮은 사회계급(육체노동근로자, 낮은 소득수준),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,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정규직화 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높음.

Summary

- 비정규근로가 건강지표에 미치는 영향
 - 남자 : 자가건강수준, 근골격계질환, 간질환
 - 여자 : 자가건강수준, 호흡기 질환, 정신질환, 사회,심리적 건강(우울증, 자살사고)
- 고용불평등 추이(1995년~2003년)
IMF 이후
 - 남자육체직에서 유의하게 증가
 - 여자비육체직에서 증가 양상

Conclusion

- 한국에서 비정규근로는 여성, 연령, 소득 및 사회계층의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성
- 비정규직 근로는 건강불평등을 만드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러한 건강불평등의 크기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더욱 증가 양상
- 비정규직의 낮은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개입의 필요성